

미래아이콘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 마케팅팀

저는 또래들에 비해 직접적인 단체생활을 한 경험이 많은 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97년, 친가가 있는 경북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인 경북에서 좋은 경쟁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은 큰 학교로 진학하고 싶었기 때문에 기숙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서 저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대학 진학을 위해 역시 홀로 서울에 올라와 재학기간 내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서 십여 년 간 거의 석 달 간격으로 난생 처음 보는 친구들과 함께 방을 써 왔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왁자지껄 어울려 노는 것보다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등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던 다소 내성적이었던 성격이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지내는 기숙사 생활을 통해 외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껏 서른 명 이상의 룸메이트를 만나보았는데,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친구들을 만나 어울리는 것과는 달리 상대의 사소한 장•단점을 일일이 겪게 되기 때문에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 맞게 서로 맞추어 주며 타인들과 원만하게 어울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럿이서 모여서 어떠한 일을 할 때 먼저 나서서 의견을 제시하여 사람들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데 소질이 있습니다. 처음의 서먹한 분위기를 깨고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편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적극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조나 팀을 짜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 리더를 맡곤 합니다. 대화를 통해 여러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조율, 종합해서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는 일을 하는 데 익숙한 편입니다. 또한 제 전공을 통해 배운 대상에 대한 해석이나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는 집요하다고 느껴질 만큼 꼼꼼하게 대상을 파악하고, 일을 해결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편이고 그 결과에 대한 욕심도 많아서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이 성의를 다하지 않을 때에는 가끔 충돌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팀이 빠격거리면 좋은 결과물을 얻기 힘들어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그룹을 이루어 결과물을 도출할 때에는 모든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팀이 이루어진 이상 모든 팀원은 하나의 공동체이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그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과제 수행을 마친 뒤 각자의 잘못을 따지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점검함으로써 더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판촉물 등을 통해 기획한 일을 홍보하고 광고하는 데 큰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일례로 대학교 2학년 때, 축제기간에 행사로 채소,생과일주스 카페를 열게 되었는데 당시 배정받았던 자리 주변이 공사중이고 후미져서 사람들이 그곳에 간이 카페가 있다는 것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오지 않으니 당연히 매출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첫날은 실패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배정받았던 장소 근처에 있던 건물의 이름이 '백마관'이라는 것과 채소와 생과일을 갈아준다는 것을 결합하여 하얀 망아지 캐릭터가 당근과 사과를 쥐고 갇아먹는 듯한 모습의 스티커를 만들었고, 다음날 이 스티커를 학우들이 많이 모이는 강의동이나 학생식당 건물에서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벽이나 바닥 등에 붙여 간이 카페가 있는 곳까지 이어 붙였습니다. 스티커를 통해 장소와 판매물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스티커로 길을 내어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수월하게 한 덕분인지 전날에 비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첫날 매출이 부진하였음에도 그 후 이틀간의 판매로 첫날의 부진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이었지만 기획과 홍보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경험의 측면에서 봤을 때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시선과는 달리 보편적인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구성하는 데에는 누구보다 뛰어난 순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러한 장점이 귀사의 필요와 부합해 인재를 원하시는 귀사에도,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좋은 기회를 가져다 주길 희망합니다.

